

중국 부상·미국 쇠퇴...아태국가들 외교전략 고민

APEC 회의 시진핑 판정승 지역안보 새 접근법 모색해야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감소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향후 외교·안보 전략을 놓고 고민에 빠져들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태국가들의 무역 관행을 비난하면서 "언제나 미국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화합과 안보를 강조하며 위엄을 보이던 역대 대통령과 확연히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은 아태 지역에서 날로 그 위상이 흔들리는 미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더구나 APEC 회의에서 큰소리는 모습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필리핀 드라 살레 대학의 리처드 헤이다리안 교수는 "트럼프는 이번 방문에서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중요한 양보도 끌어내지 못했다"며 "이는 아시아 내 '포스트 아메리칸' 질서의 부상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려 했지만, 되레 쇠퇴하는 초강대국의 초라한 지도자로 베이징을 떠났다"며 "반박의 여지 없이 미국은 더는 역내 '넘버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세계화는 불가피한 추세이며, 은둔은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하며 여유 있고 개방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아시아 각국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아시아 국가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중국의 일

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더불어 이 같은 시 주석의 발언은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으로 비쳤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에 아태국가들은 고민에 빠져든 모습이다. 지금껏 아태국가들은 지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으로는 미국,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편리한 메커니즘이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대국굴기(大國崛起)'를 내세우면서 지역 내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자 사정은 달라졌다. 하와이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센터의 알렉산더 버빙은 "우리는 지금 '과격적 창조'라고 부를만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제 아태국가들은 지역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두 갈

래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 내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들고나오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나 인도, 호주처럼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나라의 축에 끼지 못하는 국가들이 이 같은 전략은 쉽지 않은 선택지이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밀려 무역 보복을 당하거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은 이 같은 우려가 기우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리센롱 싱가포르 총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선택을 강요당한다"며 "작은 나라가 큰 이웃 나라 옆에서 생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무축천 조카 무승사

무승사(武勝嗣, ?~698)는 무축천의 조카로 병주 문수 출신이다. 무축천이 황후가 되어 권력을 장악하자 실권을 휘둘렀다. 무주 왕조 성립 후 축천 황제의 후계자가 되려 했으나 실패하고 화병으로 죽었다.

축천의 이복오빠 무원경의 아들로 674년 상의봉어에 임명되고 주공의 작위를 받았다. 684년 예종 치하에서 축천이 사실상 정사를 주재하자 비서

감, 예부상서로 승진했다. 그는 축천에게 무씨 조상들을 왕으로 추봉하고 무씨 칠묘를 세울 것을 요청했다. 재상 배임이 "태후는 마땅히 지극히 공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사사로워서는 안된다"며 반대했

란다"며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이소덕은 황제에게 건의하기를 "고종은 폐하의 지아비지시고, 황사는 아들이십니다. 폐하께서 전하를 소유하고 계시니, 마땅히 이를 자손에게 전해야 하는데, 조카를 후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조카가 천자가 되었다든지 고모를 위해 사당을 세웠다든지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무승사의 황태자 책립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692년 병부시랑 이소덕이 "위왕 무승사의 권세가 너무 큼니다"고 은밀히 고백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나의 조카니 믿고 일을 맡겼다." 이소덕이 답하기를 "조카와 고모 사이가 부자 지간과 비교될까. 지금 무승사가 폐하의 조카로 친왕이 되었고 또 재상이 되어 권력이 황제와 같게 되었습니다.

집요한 왕위 물밑작업 '물거품'

권세가 크게 높아졌다. 축천이 황제를 폐하고 무주 왕조를 세우려 획책했다. 그는 최측근으로 조정의 여론을 조작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688년 흰 돌을 깎아서 "성스러운 어머니가 백성에게 다가가서, 황제의 대업을 영원히 변창시킨다"는 문장을 새겨 넣었다. 옥을 분말로 만들어 악물에 섞어서 채웠다. 황실 사람과 조정인사 중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을 많이 죽였다. 흑리 주홍을 시켜 고종의 아들인 수주자 사 태왕 이상금과 서주자사 허왕 이소절을 목매 죽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축천이 황제가 되자 위왕에 봉해졌다.

황제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조정 안팎을 움직였다. 낙양 사람 왕경지 등 수백명을 시켜 표문을 올려 그를 황제자로 삼도록 요청했다. 동봉각난대상품 잠정천은 예종 이단이 폐위되었지만 여전히 동궁에서 살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황제가 동평장사 격보원에게 물어보지 않으니 단호히 황태자 책립에 반대했다. 왕경지가 황제를 빙고 "지금 누가 천하를 가지고 있는데 이씨를 후사로 삼으십니까"라며 거듭 무승사의 책립을 요청하자 격노한 황제는 봉덕시랑 이소덕에게 장형으로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이소덕은 "이 도둑놈이 우리 황사를 폐하고 무승사를 책립하기를 바

신은 폐하께서 오랫동안 자리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없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황제가 "짐은 아직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결국 그를 재상직위에서 해임했다. 그가 이소덕을 황제에게 참소하자 황제가 답하기를 "나는 이소덕을 임명하고 비로서 편안히 잠잘 수 있었다.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 힘을 것이니, 너는 더 이상 거론치 마라"

693년 5천명을 대동해 황제에게 '금륜성신황제'라는 존호를 쓰도록 청원했다. 이듬해 2만 6천명을 동원해 '월고금륜성신황제'라는 어마어마한 존호를 올렸다. 고모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을 후계자로 책립토록 집요하게 공작했다. 그러나 재상적인결이 극력 반대했다. "소신은 자고로 조카가 황제가 되어 태묘에 고모를 위해 제사를 올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며 강력히 이씨가 뒤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제는 후사를 정하는 일은 집안 문제로 재상이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적인결은 "군주란 사해가 바로 집입니다. 사해 안의 일 어느 하나가 폐하의 집안 일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며 반박했다. 결국 국로 적인결에게 설득당해 698년 아들 여흥왕을 수도인 낙양으로 불러들였다. 무승사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결국 이 충격으로 울화병이 도져 끝내 세상을 하직했다.

막말 대장들의 만남...트럼프·두테르테 필리핀서 첫 회담

만찬서 두테르테 열창 '화목' 필리핀 인권문제 언급 안해

모두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13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별도 회담을 하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세력 대처와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등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자신과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주 좋은 관계'(great relationship)이며 "매우 성공적"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과 필리핀 언론이 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당신의 동맹, 중요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 창설 50주년 갈라 만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래 요청을 받고 필리핀 인기가요 '당신'(Ikaw)을 가수 필리타 코랄레스와 함께 열창하는 등 화기에 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울러 거침없는 막말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는 거친 말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유혈전쟁'과 관련,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이



이란-이라크 접경 대지진...200여명 사망 13일(현지시간) 이란 북서부 케르만샤주(州) 사르폴-에자하브 마을에서 주민들이 지진으로 부서진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 지역 부상자는 17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재민도 최대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에서도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쇄도하자 기자회견이 아닌 양자회담이라고 말했다.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령 대변인은 40분만에 걸친 두 정상 회담이 끝난 뒤 "인권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케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리핀에서 마약의 위협에 대해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

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고 단지 머리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인권문제가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잠깐 불거졌다"고 말했다.

양측의 설명이 다소 다르지만 필리핀 인권상황이 별다른 이슈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때 마약 단속과 관련, "잘하고 있다"고 말해 필리핀의 인권 문제에 눈을 감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말하는 등 트럼프 정부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